

광양시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는 미래 도시 전환”

청년정책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생활안정 정책 1순위 주거 지원

일자리 등 신규 사업 24개 발굴

광양시가 향후 5년간 시정을 이끌어갈 청년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김정완 부시장 주재로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기틀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 될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것 으로 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과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마를 대표 등 18명 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실태조사 결과

와 환경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용역 실태조사 결과 광양시 청년 인구는 40-45 세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생활안정 정책으로는 ‘주 거 지원’(36%)이 1순위로 꼽혔다.

특히 광양으로 전입한 사유는 ‘취업’(70%)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반대로 광양을 떠나고 싶 은 이유로는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서’(24.8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일자리와 문화 간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한 장현필 (재)한국자치경제연구 원 본부장은 “산업체 근로 청년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함에도 사회 참여가 저조하 고 행정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 지 원을 넘어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는 미래도시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남성 중심의 일자리 구조 ▲청



광양시청에서 최근 열린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정완 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향후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제공〉

년 역할 부재 등을 현주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 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활동 공간 마련 ▲단기 거주 프로그램 제공 ▲여성 청년 일자리 발굴 ▲사각지대 청년 바우처 지원 ▲문화·여가

생활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시는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제2차 청년정책의 비전을 ‘청년이 머무르고 참여하는 청년미래도 시 광양’으로 설정했으며, 핵심 과제로는 ▲광양

청년 주권시대 확대 ▲산업청년 사회참여 확대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미래형 일자리 창출 등을 도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5개년 계획은 총 5대 분야 7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일자리(11개) ▲주거(8개) ▲교육(12개) ▲청년복지·문화(33개) ▲참여·권리(14개) 등이며, 이중 24개는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다.

김정완 광양부시장은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청년이 광 양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최종 용역 결과물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부터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조 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 어갈 방침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지난 24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정기명 여수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비전 선포를 알리는 터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 제공〉

“시민 힘으로 비상”...여수교육 2030 비전 선포

불균형 해소·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

3대 전략·12대 과제 등 청사진 공유

여수교육지원청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교육 이정표를 세웠다.

25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 남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0 여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 원, 김용민 전남대학교 부총장, 유관기관 대표, 교육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여수 교육에 대 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포식에서는 현장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해 장학사 4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2030 여수교 육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새 비전은 ‘여수교육, 시민의 힘으로 비상하 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여수 교육’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3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 히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당 면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빈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김대중 교육 감은 환영사를 통해 “여수에서 태동한 ‘2030교 실’이 국가적 과제인 ‘AI 시대 미래교육’의 선 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며 “여수 교육의 새로 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 속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교육이라는 공통 과제 를 고민하고 희망찬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한 아이를 품는 일은 한 도시의 미래를 품는 것과 같다”며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키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대미는 참석자 전원이 슬로건을 제창 하며 비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장식됐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의 열 기를 이어받아 제시된 비전과 과제를 즉시 사업 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 표고·무산김, 홍콩 식탁에 오른다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무산김 이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정남진장흥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김성 군수와 강경일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 특산 물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표고버섯 48t과 무 산김 3만봉 등 총 5억1천만원 상당이다.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의 특산물은 25일 부산항을 통해 출항하며, 오는 12월 중 한 차례 더 추가 선 적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흥군의 이번 성과는 지난 2021년 일본 수출 을 시작으로 14년 연속 이어진 직수출 쾌거다. 특히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2015년 홍콩 시장 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매년 1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 고 있다.

이는 장흥군과 전남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 사(aT)가 협력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생산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등 공격적인 공동 마케팅 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강경일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은 “이상 기후 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신규 시장 개척과 유망 상품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 4-H연합회, 스마트 기술 접목 ‘콩’ 수확

도곡면 학습포서 4천239kg 생산

자동화 노동력 절감...수익금 기부

화순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첨단 기계화 영농 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나눔을 실천해 눈길 을 끌고 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4-H연합회는 전날 도곡면 공동 과제학습포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콩 수확 과제 교육을 실시 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고품질 콩의 안정적 생산과 자동 화 농업기술 실증을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총 1만4천378㎡ 규모의 학습포에서 재배한 ‘선 풍콩’을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선풍콩’은 불마름병과 바이러스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떨어지지 않아 기계 수확에 최적화된 품종이다.

올해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자동화 농기계를 적극 도입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



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수확된 콩은 총 4천239kg에 달하며, 연 합회는 이를 단순 원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 공식품 개발 및 지역 특화 패키지 제작 등 6차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 예정이다.

장승희 화순군4-H연합회장은 “스마트 기술 을 접목한 이번 과제 학습은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첨단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과 교육을 이어가 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한 자리에”

29일 빙구레스테이션서 전시

구례의 자연과 문화를 재해석한 로컬크리에 이터들의 개성 넘치는 창작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년 1 월4일까지 구례읍 빙구레스테이션에서 ‘구례 군 로컬크리에이터 팝업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구례군 제1·2기 로컬크리에이터 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창작 굿즈와 디자인 제품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에는 창작자별 홍보 엽서를 비치해 작 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례의 우수 농·특 산품과 압화(押花) 작품도 함께 전시해 지역의 1차 산업과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꾸며진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되며 현장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전시 품과 지역 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 한다. 평일 단체 관람은 군 기획예산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영덕교육지원청, 교육 교류 ‘활발’

‘공간혁신·공동교육과정’ 모델 논의

담양교육지원청과 영덕교육지원청이 영·호 남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한 협 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25일 담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창평초등 학교에서 ‘2025 하반기 영·호남 교육교류’ 행사를 갖고 교육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김진홍 담양교육장과 윤인한 영덕교육장을 비롯해 양 지역 교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창평초의 공간혁신 사례를 둘러 보며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경험을 공

유했다. 창평초는 2024년 공간재구조화 우수 흥 보 대상 학교로, 학생 활동 중심의 혁신적인 교 육 공간을 조성해 주목받고 있다.

방문단은 이러한 공간 변화가 실제 수업 방식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토하며 이를 미 래 교육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교류에서는 담양 창평초와 영덕 창수초 가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교류’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두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동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은 이날 온라 인공동 수업 공개를 통해 구체화 했다.

/담양=정승균 기자